

# 국화 재배농가 경영 표준진단표 갱신 연구

이철휘\*, 장현동\*, 박종미\*, 박하승\*, 함수상\*, 김학현\*, 허무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주대학교  
e-mail:Lch5127@korea.kr

## The Study on the Renewal of Management Checklist for Chrysanthemum Farmer

Cheol-Hwi Lee\*, Hyun-Dong Jang\*, Jong-Mi Park\*, Ha-Seung Park\*, Su-Sang Ham\*, Hak-Hun Kim\*, Moo-Yul Huh\*\*.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Konju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국화 경영 표준진단표는 2,000년도에 개발되었다. 농촌진흥청 농가 기술보급위한 지도사업이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컨설팅 도구인 작목별 진단표를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표준진단표가 급속한 농업환경의 변화로 정확하게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화 경영 표준진단표를 갱신 개발하였다. 먼저 기존의 진단표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즉 절화 국화는 크게 스탠다드와 스프레이로 나누어진다. 스탠다드는 대국으로 1주에 1개의 꽃을 달게하여 수확한다. 용도는 주로 장례용 꽃으로 활용된다. 스프레이는 꽃꽂이 장식용으로 1주에 꽃이 여러개 달리며 색상 및 품종도 다양하다. 이렇게 분류됨에 따라 재배법도 다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세세한 정밀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배면적 비중이 큰 스탠다드 위주의 진단표를 갱신하였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스탠다드 국화 재배면적은 231.4ha이어서 전체 국화 재배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국화 표준진단표를 갱신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가 등 여러단계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는 독농가를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협의회를 약 3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초안에 대하여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다시한번 검증을 받는 단계이다.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 일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일치하여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먼저, 독농가 대상 파일럿 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생산자단체 작목반장 등에 대하여 방문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영성과지표의 경우는 수량적인 면에서 수량보다는 품질을 중요시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재식거리를 넓히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10a당 수량 범위를 조정하였다. 표준진단표는 크게 3가지인데 일반현황, 경영성과지표 그리고 세부진단지표로 구분된다. 일반현황의 경우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연령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언제나 연령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팩스번호의 경우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경영성과지표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0a당 수량이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단계별 범위를 조정하였다. 세부진단지표는 시설구조 및 자동화, 환경관리, 작물관리 그리고 경영관리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구조 및 자동화에서 축고, 시설형태 그리고 가온 및 냉방시설은 5단계 값을 조정하였다. 보온커튼 시설의 경우는 새로운 피복재료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리고 환기시설과 환경자동화는 기존의 항목을 보완하는 정도로 수정하였다. 환경관리의 경우 광관리등 6개 항목을 단계조정하고 유기물 시용관리는 신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작물관리의 경우는 품종선택 등 5개는 단계조정되었고 육묘의 경우는 새롭게 추가 되었다. 경영관리의 경우는 경영진단만 단계조정이 이루어지고 선별 등 5개 항목은 새롭게 구성하였다. 농업환경 중 농업경영관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렇게 조정된 초안에 대하여 전문가 10명에게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종합평가표를 만들기 위하여 세부진단지표에 대한 항목별 비중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설구조 및 자동화 31.4%, 환경관리 26.4%, 작물관리 28.6% 그리고 경영관리 13.6%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세부진단지표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요도 조사결과가 전문가간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사분위수(IQR)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사분위수 값이 1 이하이면 일치 2 이상이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 총 29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전문가간 의견이 일치하였다. 하지만 8개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주어진 제시값을 다시 설문하는 델파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결과 항목에 대하여 50%이상의 찬성값을 얻어 최종 확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가중치와 중요도값을 활용하여 종합평가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갱신된 표준진단표를 가지고 다시 농가 실증 진단을 실시하고 보완하여 최종 갱신안을 확정하였다.

Keyword : checklist, chrysanthemum, consulting

☐ 본 연구는 2023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PJ0148542023)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